

다산포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얼마 전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100세를 살아 본 경험을 찬찬히 관조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이가 들며 급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울드숭에 혼잣말로 절로 흥얼거리는 것처럼 익숙한 논리와 단어에 절로 머리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요즘 세상살이는 진실로 익숙함과 이별이며,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매일이다. 마스크의 장시간 착용, 혼자 하는 강의, 일상적인 혼잡과 혼술, 종갓집 제사의 유튜브 중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등은 참으로 낯설다. 옛날 같으면 이상한 일로 치부하거나, 하면 안 될 일들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다. 요사이 경제도 그렇다. 경제학의 상식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양상이 보인다. 통화량은 일국에서 유통되는

뉴 노멀 시대의 경제 문제

돈 또는 돈의 대응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당국이 돈을 풀면, 이 돈은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에 흘러들어가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투자 수요나 가계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물가의 흐름세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그제야 주식이나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이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는 이상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돈을 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물가가 오르는 커녕 수요조차 늘어나지 않았다. 먹고사는 곳에서는 여전히 소득이 불평등했고, 실업자만 증가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는 통화화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돈을 더 풀었다. 이자율은 더욱 떨어지고 시중의 돈은 넘쳐났지만 여전히 물가는 제자리였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닥친 것이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더욱 괴로워졌고 병약한 이는 더 많이 죽어갔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원을 하더라도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과 증권, 심지어는 암호화폐도 유례없이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스텔다섯 번

의 부동산 규제를 했지만 개인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끌어 모아, 영혼을 끌어 모으는 것처럼 집을 사는 '영끌'로 뚫는가 하면, 빚내서 투자를 하는 '빚투'를 해서라도 주식을 사 모은다. 이러한 부분만 보면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모습이 가려진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양상은 여러 가지이리라. 영화 타이타닉을 보자. 한쪽이 가라앉을 때 한쪽은 들린다. 가라앉은 부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배는 결국 가라앉는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도 도전을 받는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이영덕 교수께서 이세태를 '역설'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셨다. 요컨대, '열심히 글로벌화해 선진국이 되었다니 방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 가라앉는 타이타닉 경제나 역설로 접철된 개인의 생활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감으로써 '뉴 노멀'이 된다 해도, 결국 구원의 길은 기득권과 비기득권, 자본과 노동, 개인과 사회가 서로 돕고 함께 하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거기에 국가도 있다.

社說

명절 선물세트 포장 간소화 근본 대책 마련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음식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생활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 세트에 대한 유통·식품업계의 과대 포장 관행이 여전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지난 6일부터 이를 관 주 지역 백화점·대형마트·농산물직판장 등에서 판매 중인 설 선물 세트를 살펴본 결과 삼중·사중으로 재포장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는 커녕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소재로 포장된 것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구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 놓인 '샤인머스켓' 세트의 경우 손바닥만한 세 송이가 전부였지만 포장 박스는 두 세 배나 컸다. 상품 가치를 높여야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고 다시 스티로폼으로 감싼

뒤 폭신한 종이들이 깔린 박스에 담아 내놓은 형태였다. 한 백화점에서 파는 어묵 선물 세트의 경우 사각 나무상자 위에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진공 포장된 어묵들을 놓은 뒤 다시 투명 필름으로 감싸고, 목재 뚜껑을 덮은 다음 부직포 가방에 담았다. 환경부는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가공식품·주류 등의 선물 세트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로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과대 포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물 세트의 과도한 재포장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폐기물 발생은 물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유통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송구영신'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

중·한 양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을 대표해 호남 지역 한국 친구 여러분께 정성 어린 새해 인사와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중한 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 19 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가장 먼저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 통로'를 개통해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0.7% 늘었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전년 대비 102.8% 증가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예로부터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여 지금까지 120여 건의 자매·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 방역 물자를 기증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교류를 지속하면서 서로를 응원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2020년은 중국이 코로나 방역의 전략적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코로나의 큰 충격에도 중국의 국민 경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연간 2.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50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 36개 팀을 파견했으며, 200여 개 국가에 4385억 위안 상당의 방역 물자를 수출했습니다. 중국 백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며 전 세계 방역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또한 중국 경제 사회 건설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연간 국내총생산이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돌파했고 1인당 GDP는 2년 연속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식량 생산은 17년 연속 풍작을 이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 '탈빈곤'의 목표를 완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중국의 대외 개방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대외 투자액도 전년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교역 총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18.3% 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누적 의향 거래액도 726.2억 달러로 전회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고 유럽연합 EU와의 포괄적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새해인 2021년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 주년을 맞이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의 첫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및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복잡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는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제 방역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호혜와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시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측과 진일보된 협력을 통해 호혜와 상생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새해 인사를 주고 받고 중한 양국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올해 양국 교류와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한 문화교류의 해"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일대일로' 구상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제14차 5개년 계획'과 '한국판 뉴딜'의 연계를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한 실무 협력에 더욱 큰 기회를 열어 갈 것입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도 양국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중국의 지역 발전 계획과 '광주형 뉴딜',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전북형 뉴딜'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양측의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인문 교류를 통하여 지역 교류의 새 장을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호남 지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개신교 신도들 또 '대면 예배' 정말 왜 이러나

광주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가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개신교회가 또 적발됐다. 시민들은 1년 넘게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금지 등으로 큰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이들은 버텨야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오후 8시경 당국은 불 꺼진 교회 건물에 사람이 모여 든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 광주 광산구의 한 개신교회에서 교인 4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보고 있는 장면을 적발했다. 교인 다수는 현장 적발 뒤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해산했으나, 일부 교인은 적발된 후에도 촬영 등을 핑계로 예배 당에 남아 있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정부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경우 방송 제작을 위해서만 (기술)인력에 한해 2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아울러 교회의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은 일단 해당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대면 예배로 고발된 것이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라면 지켜주지 않겠다"며 "시가 제발 단속 좀 강화해서 교회발 감염 좀 막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그치지 않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의 작태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저들의 귀에는 "코로나로 다 죽게 됐다"며 울분을 토해 내는 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인가.

NGO 칼럼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난 도시계획위원의 해촉을 촉구했던 참여자치21의 논평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는 듯하다. 광주시는 이 논평에 대해 법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사실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례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적용의 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다 분명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 조례의 취지에 있다. 참여자치21은 이 법규의 취지가 특정 인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자주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 위촉은 구조적으

'광주 도시계획의 조타수'가 되기 위한 조건

로 이해관계인의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도시계획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광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 없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일각의 주장처럼 부결의 횟수가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주의 특색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추종하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가? 파리의 '15분 도시' 구상처럼, 광주가 어떤 도시로 나아가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비전을 기존 삼아 구체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해 나가는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법규 위반인가 아닌가를 해명하기 전에 특정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위촉되면서 발생하는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한계를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전문가들에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는 훌륭한 도시계획 심의의 토대가 된다.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분

야들이 광주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데 충분하지에 있다. '도시비전'을 제시할 만한 전문가가 없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흥정 하듯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녹지 공간을 약간 늘리는 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8개의 분야로 종합적 도시계획이 가능하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토지 이용' 등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불균형도 문제이다. 이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이다. 현재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의 위원 중 학계를 포함해 21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정보 제공자로서는 탁월하지만, 시민의 삶과 이해를 중심으로 이를 종합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전체 70%를 차지하는 전문가들의 비율, 그것도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전문가들의 비율을 줄이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 때 도시계획위원회는 '흥정꾼'을 벗어나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광주 도시계획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하였으므로 동궁(東宮)에 있는 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왕조실록은 12대 인종(仁宗, 1515-1545)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성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종은 부왕(父王) 중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앞 관동천변에는 계단을 받으며 자란 듯한 모양의 난산(南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 선생이 인종의 승하일인 음력 7월 1일에 하루 종일 울드려 애절하게 통곡했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하서는 1543년(중종 38년)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 說書)를 맡아 세자이던 인종과 사제(師弟)의 인연을 맺었다. 그 당시 인종은 비단에 손수 그린 묵죽도(墨竹圖)를 하서에게 하사하면서 그림에 제시(題詩)를 짓도록 했다. 하서는 즉석에서 이렇게 썼다. "뿌

리, 가지, 마디, 잎새 모두 다 정미(精微)롭고/ 글은들은 벗인 양 주위에 둘러있네/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 찍하시니 / 천지(天地)랑 함께 뭉쳐 어김이 없으시라."("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동암 김병효 지음, 2007년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펴냄) 인종은 또한 하서에게 성리학자 주희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과 배 3개를 내리기도 했다. 하서는 고향에 배시를 심었는데 후손들은 이 나무를 '임금이 선 물로 내려 주신 배'라는 의미의 '어사리'(御賜梨)라고 부르며 정성껏 가꿨다. 배나무는 세 번이나 고사될 뻔했으나 다시 살아나 현재 수령 300년의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인종이 스승인 하서에게 하사한 '묵죽도'를 새긴 목판이 도난당한 지 15년 만에 장성 필암서원으로 돌아온다. 서원 내 장경각(藏經閣)에 보관하던 중 지난 2006년 도난당했다가 제자리를 찾게 된 묵죽도 목판을 통해, 480여 년 전 군신(君臣) 관계를 뛰어넘어 되살아나는 사제 간의 훈훈한 향기를 느껴 볼 수 있을 것 같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